

世宗代 학술·문화에 끼친 權近의 영향

강 문 식*

< 目 次 >

I. 머리말	2. 의례 정비와 제도화
II. 家學과 官學 교육	IV. 저술을 통한 영향
1. 가학의 계승	1. 經學 저술의 영향
2. 관학에서의 교육 활동	2. 『孝行錄』 주해와 『三綱行實圖』
III. 교육 및 儀禮 제도 정비	V. 맺음말
1. 교육 제도 정비와 법제화	

<국문 초록>

세종대의 학술·문화의 발전은 세종과 당시 관료·학자들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선배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세종대 학술·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이가 權近이었다.

권근의 학문은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세종대의 학계에 영향을 끼쳤다. 첫째는 安東權氏 家學과 官學에서의 교육 활동을 통한 학문 전수이다. 가학과 관학을 통해 권근의 학문을 계승한 대표 인물로는 권제·권람·최항·서거정·변계량 등이 있는데, 이들은 세종대 집현전의 학문 활동과 연결되는 공통점이 있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 kangms1@snu.ac.kr

이는 권근의 문인들이 집현전으로 대표되는 세종대 관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교육과 儀禮 제도 정비를 통한 영향이다. 권근은 교육·문화 계통의 관직에 종사하면서 관학 교육 및 國家典禮에 관한 여러 제도들을 입안했으며, 이 내용들은 법제화되거나 태종~세종대 국가전례 정비에서 참고 자료가 되었다. 교육·의례 제도의 정비는 권근의 학문이 사승 관계를 통한 전수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서 조선 초기 관학계 전반에 영향을 끼쳤음을 잘 보여준다.

세 번째는 저술을 통한 영향이다. 권근의 저술 중 후대 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는 『入學圖說』, 『五經淺見錄』 및 經書口訣 등의 경학 저술과 『孝行錄』을 꼽을 수 있다. 『입학도설』, 『오경천견록』은 여러 차례 간행되어 학자들에게 보급되었고, 경서구결은 조선 초기 경서 학습의 중요한 지침서가 되었다. 또, 『효행록』은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 세종대 『삼강행실도』 편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주제어】 世宗, 權近, 安東權氏 家學, 官學, 經書口訣, 『孝行錄』

I. 머리말

세종대가 조선시대 역사에서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학문과 문화가 발전한 시기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集賢殿으로 대표되는 官學의 학문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었고,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제도와 문물이 정비되었다. 그리고 세종대에 정비된 제도와 문물은 세조~성종대의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經國大典』, 『國朝五禮儀』 등으로 완성되었다. 또, 세종대 집현전에서 양성된 많은 인재들이 성종대까지 활동하면서 15세기 후반의 정치·사회 운영과 문화 발전을 이끌어 나갔다.

세종대에 위와 같은 학술·문화의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물론 이를 주도했던 세종과 당대 학자들의 역량에 힘입은 바가 가장 컸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앞 시기의 학문적 성과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고려 말 元으로부터 성리학이 수용된 이후 成均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와 교육을 통해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고려 말에 성장한 성리학자들은 조선 건국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했으며, 건국 이후에는 관학을 주도하면서 각종 제도 정비와 인재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세종대 학술·문화의 발전은 바로 이와 같은 선배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겠는데, 그 중에서 학문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權近(1352~1409)을 들 수 있다.

조선 건국 초기 관학을 주도한 대표 학자로는 鄭道傳과 權近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다. 두 사람은 모두 고려 말의 대학자 李穡의 제자였으며, 공민왕대 중영된 성균관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고려에 수입된 다양한 조류의 성리학을 두루 흡수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제도 정비와 학문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구체적인 활동 방식과 저술의 내용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정도전은 주로 정치 일선에서 활동하면서 官制 및 軍制 개혁 등을 주도했으며, 저술도 『朝鮮經國典』·『經濟文鑑』과 같이 권력구조나 정치 제도·운영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權近은 교육과 文翰 관련 관사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入學圖說』·『五經淺見錄』 등과 같이 학술적 성격이 강한 저술들을 많이 남겼다. 이와 같은 차이는 權近이 정도전보다 세종대의 학술·문화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세종대는 태조~태종대의 創業期를 잇는 守成期의 시작으로, 성리학 이념에 부합하는 국가의 제도·문물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였다. 이에 세종이 집현전을 설치하고 문물·제도의 정비를 위한 古制 연구와 각종 서적 편찬을 적극 추진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權近의 학문은 이와 같은 세종대의 학문 활동에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었다. 經學과 禮學으로 대표되는 權近의 학문적 성과들은 문물·제도 정비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고, 그가 마련한 교육·의례 제도들은 직접적인 참고 자료가 되었다. 또 당대 최고 수준이었던 그의 문학과 문장은 문물·제도

정비의 성과를 정리하고 外化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었다. 즉, 권근의 학문은 세종대의 시대적 과제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

반면, 정도전의 학문은 '제도 개혁'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수성기인 세종대의 시대 과제와는 약간 거리가 있었다. 여기에 정도전이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실각하면서 그의 학문이 조선 초기 관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했다. 이상의 요소들이 결합하면서 권근의 학문은 정도전에 비해 세종대에 더 큰 조명을 받게 되었고, 이 시기 학술·문화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종대 학술·문화에 끼친 권근의 영향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세종대 문물·제도 정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많은 학자들이 家學과 관학 교육을 통해 권근의 학문을 전수받았음을 확인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권근이 주도하여 정립한 교육 및 의례 제도가 세종대를 포함하여 15세기 관학 교육과 제도 정비에 끼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經學書を 비롯한 권근의 여러 저술들이 15세기 학자들의 학문 활동에 끼친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家學과 官學 교육

권근의 학문은 기본적으로 安東權氏 家學과 官學 교육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학문을 후배 학자들에게 전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했던 경로 역시 가학과 관학에서의 교육 활동이었다. 가학과 관학 교육을 통해 권근의 학문을 계승한 여러 학자들은 세종대 관료로 활동하면서 학문 연구와 문물·제도 정비를 주도하였다. 따라서 세종대 학술·문화에 끼친 권근의 학문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가학과 관학에서의 활동, 그리고 그 학문적 영향 속에서 배출된 학자들의 면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가학의 계승

권근은 17세 때인 1368년(공민왕 17) 성균시에 합격하기 전까지 ‘權溥→李齊賢’으로 이어지는 안동 권씨 가학을 통해 학문적 기초를 다졌다. 권보는 충렬왕대에 『四書集註』 간행을 추진했고, 1314년(충숙왕 1)에는 李瑱·權漢功 등과 함께 중국에서 구입해 온 경학서를 考閱하는 등 고려 말 관학을 주도했던 학자의 한 사람이었다. 또 그는 1342년(충혜왕 복위 3)에 아들 權準, 사위 이제현과 함께 『孝行錄』을 편찬하는 등 안동 권씨 가학의 출발점이자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었다.

권보의 사위이자 제자인 이제현 역시 안동 권씨 가학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1314년에 충선왕의 시종신으로 元에 가서 1325년까지 12년간 생활하였다. 이 기간 중 그는 萬卷堂에서 원 관학의 여러 학자들과 교류했으며, 또 1319년에는 江浙 지역을 여행하면서 湯炳龍·許謙·陳樵 등 당시 강남 지역을 대표하는 석학들과도 교류하였다.¹⁾ 이상의 과정을 통해 이제현은 許衡 학풍 중심의 원 관학뿐만 아니라 강남 지역의 성리학까지도 두루 섭렵했으며, 귀국 후 가학 및 관학 교육을 통해 이를 전수하였다.

권근은 안동 권씨 일가인 權弘에게 준 시에서 권보의 학문 계승에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²⁾ 또 이제현의 손자 李蟠에게 준 글에서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조부 權阜로부터 이제현의 학문을 본받으라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였다.³⁾ 이런 점들은 권보·이제현 등으로 이어진 가학이 권근의 학문 형성에 기반이 되었음을 보여준다.⁴⁾

가학에 기초하여 형성된 권근의 학문은 다시 가학을 통해 후손들에게

1) 이제현의 在元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鄭玉子, 「麗末 朱子性理學의 導入에 관한 소고」, 『震檀學報』 51,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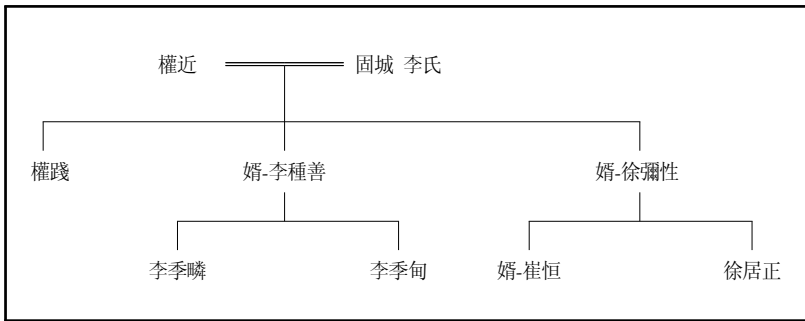
朴現圭, 「李齊賢과 元文士들과의 交遊考」, 『嶠南漢文學』 3, 1990

2) 권근, 『陽村集』 권8, 「復用前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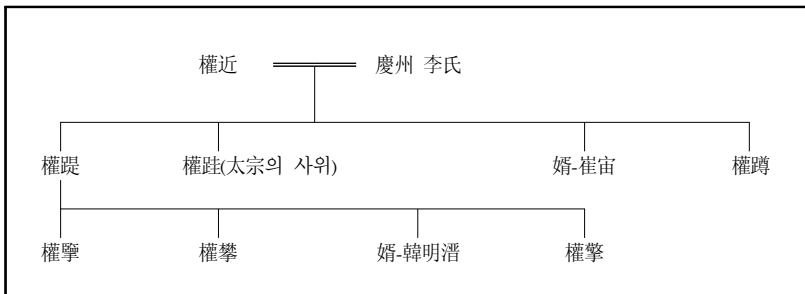
3) 권근, 『陽村集』 권15, 「贈李生序」

4) 강문식, 『권근의 경학사상 연구』, 일지사, 2008, pp.32-34.

전수되었다. 권근의 첫째 부인은 고성 이씨 李岡의 딸로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으며, 1383년 1월에 사망하였다. 권근은 고성 이씨가 사망한 이듬해(1384년) 경주 이씨 李存棼의 딸과 재혼하여 3남 1녀를 두었다. 권근 후손들의 계보를 정리하면 아래의 <圖-1>, <圖-2>와 같다.



<圖-1> 권근의 후손 1-고성 이씨 소생



<圖-2> 권근의 후손 2-경주 이씨 소생

먼저 <圖-1>을 보면, 고성 이씨의 소생에서는 친손보다 외손에서 유력 인물들이 출현하였다. 첫째 딸은 이씨의 아들 李種善과 혼인하여 李季隣·李季甸 형제를 낳았다. 또 둘째 딸은 徐彌性和 혼인했는데, 서미성의 아들이 徐居正이고 사위가 崔恒이다. 이들은 모두 조선 초기 세종~성종대에 관학을 주도했던 인물들로서 권근의 학문을 계승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경주 이씨의 소생 중 조선 초기 학계에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로는 權躋와 權擘 부자가 있다. 특히 권제는, 이 복형인 權踐이 있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만아들 역할을 하면서 부친 권근의 학문을 계승·보급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권근의 후손이라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서거정이 蔡壽의 藝文應教 임명을 축하하면서 써 준 글에서 잘 나타난다. 이 글에서 서거정은 고려 말부터 당시까지 예문응교를 역임했던 권근·권제·이계전·최항, 그리고 자신을 모두 ‘一家’로 표현하면서 권근의 재종외증손인 채수까지도 이 일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문응교의 직을 이어가며 文柄을 주도한 것이 모두 “外祖 [권근]가 積善한 경사”라고 규정하였다.⁵⁾ 이는 서거정 등이 단순히 권근의 후손이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권근의 학문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권근의 학문이 가학을 통해 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조선 초기 官撰史書의 편찬을 들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5세기에는 이전 왕조의 역사를 정리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천명하는 차원에서 관찬사서가 활발하게 편찬됐는데, 그 중 고대사 편찬을 권근과 그 후손들이 주도하였다. 먼저 권근은 태종대에 金富軾의 『三國史記』를 綱目體로 다시 정리하여 『東國史略』을 편찬하였다.⁶⁾ 또 그 아들 권제는 단군~고려 말의 역사를 詩歌 형식으로 정리한 『東國世年歌』를 편찬했고, 손자 권람은 권근의 應製詩에 주석을 붙이는 형식으로 우리나라 고대사를 정리한 『應製詩註』를 지었다. 그리고 서거정은 삼국의 역사를 정리한 『三國史節要』의 편찬을 주도했고, 이를 다시 『高麗史節要』와 결합하여 『東國通鑑』을 편찬하였다.⁷⁾

권근과 권제·권람·서거정 등이 역사를 해석하는 시각까지 모두 동일했

5) 강문식, 앞의 책, p.46.

6) 강문식, 「權近의 역사인식과 역사서술」, 『한국학보』 117, 2004 ; 『권근의 경학사상 연구』, 일지사, 2008.

7) 권제·권람·서거정 등의 역사서 편찬에 관한 내용은 韓永愚, 『朝鮮前期史學史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1, pp.35-78 참조

던 것은 아니다. 또, 이 역사서들이 기본적으로 왕명으로 편찬되었고, 국가와 국왕의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관찬사서’라는 점에서 순수한 학술서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국가사업으로 역사서를 편찬할 때 이를 담당할 책임자로 권근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선택됐다는 것은 이들의 역사학에 대한 조예가 상당히 깊었다는 점과 그 연원이 가학을 통한 권근 역사학의 계승에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⁸⁾

한편, 이계전·최항·서거정과 권제·권람 부자의 이력을 보면 중요한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바로 이들 5인이 모두 세종대 集賢殿 관원을 역임했다는 점이다.⁹⁾ 또 세종대에 사망한 권제를 제외한 나머지 4인은 모두 세조 정권에 참여하여 공신에 책봉되었다. 이러한 공통점은 권근의 학문 계승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집현전에서는 古制 연구와 서적 편찬, 그리고 賜暇讀書 등과 같이 학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학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집현전 관원들은 서로 학문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통의 학풍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분명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권근의 학문은 집현전에서 활동한 후손들을 통해 집현전 관원들 전체, 그 중에서도 특히 세조 정권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8) 역사학이 안동 권씨의 가학적 성격을 갖는 것은 권근에 앞서 이제현 단계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이제현은 1346년(충목왕 2)에 安軸·李穀 등과 함께 閔漬의 『本朝編年綱目』을 重修했으며, 충렬왕·충숙왕·충선왕의 실록인 『三朝實錄』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또, 1357년(공민왕 6)에는 고려의 역사를 정리한 『史略』을 편찬했고, 이를 바탕으로 白文實·李達衷 등과 함께 『國史』를 편찬하는 등 고려 말 역사서 편찬에서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이렇게 볼 때, 안동 권씨 가학으로서의 역사학은 이제현에서 시작되어 권근을 거쳐 그 후손들에게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9) 집현전의 존속 기간을 역할의 변화에 따라 세 시기로 나누어 볼 때, 권제는 1기인 1423년(세종 5)부터 1427년 사이에, 최항과 이계전은 2기인 1428년부터 1436년 사이에, 권람과 서거정은 3기인 1437년부터 1456년(세조 2) 사이에 집현전 관원으로 활동하였다(강문식, 「集賢殿 출신 官人의 學問觀과 政治觀」, 『韓國史論』 3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8).

2. 관학에서의 교육 활동

권근은 1368년(공민왕 17) 성균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성균관 입학은 권근의 학문 성장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주지하듯이 성균관은 1367년에 重營되어 고려 말 유학 중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성균관에는 원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李穡이 大司成을 맡고 鄭夢周·金九容·朴尙衷·朴宜中·李崇仁·鄭道傳 등이 교관에 임명되어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였다. 또 원의 관학뿐만 아니라 강남 지역의 성리학까지 고려에 수용된 다양한 성리학의 조류들이 성균관으로 수렴되어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권근은 1368년 8월 성균관에 입학한 후 이듬해 6월 문과에 급제하고 7월 春秋檢閱에 제수될 때까지 약 1년 가까이 성균관에서 수학하였다. 이 과정에서 권근은 이색을 비롯한 여러 교관들에게 교육을 받으며 성균관에 수용된 성리학의 여러 조류들을 두루 섭렵하였을 것이다. 권근이 『五經淺見錄』 등의 경학 저술에서 송·원대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성균관에서의 수학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권근은 1369년 7월 처음 관직에 나간 이래로 주로 교육·문화 관련 직책에 종사하였다. 고려 말에는 1373년 12월 知製教에 임명된 이후 1388년 10월까지 이 직을 겸임하면서 여러 종류의 국왕문서 작성을 담당하였다. 1374년부터는 예문관·춘추관의 관직을 맡았으며, 또 成均大司成·書筵侍講 등에 임명되어 관학 유생들과 왕실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권근은 유생 선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1380년(우왕 6) 6월에는 成均祭酒로서 성균시를 주관하여 洪尙賓 등 110명을 선발했고, 1385년에도 성균시를 주관하여 尹逢 등 61명을 뽑았다. 또 1388년 10월에는 정도전과 함께 과거를 주관하여 李垠 등 33명을 선발하였다.¹⁰⁾

10) 강문식, 앞의 책, pp.54-55.

교육·문화 중심의 관직 활동은 조선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권근은 1393년 2월 계룡산에 행차한 태조의 부름을 받고 관직에 나왔는데,¹¹⁾ 첫 번째로 제수 받은 직책이 檢校 藝文春秋館太學士 兼成均大司成이었다. 이후 그는 경연·寶文閣·예문관·춘추관·성균관 등의 관직을 항상 겸했으며, 실제 활동에서도 1400년(정종 2) 3월부터 11월까지 사헌부 대사헌으로 재직했던 것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교육·문화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 시기의 중요 활동들을 정리해 보면, 1394년(태조 3) 2월에는 정도전·성석린·하륜 등과 함께 우리나라 역대 현인들의 秘錄을 정리했으며, 1398년 4월에는 정도전과 함께 성균관 제조가 되어 現任 및 閑良의 4품 이하 儒士들과 三館儒生들을 대상으로 경서와 역사서를 강습하였다. 1400년(정종 2) 2월과 5월, 1401년(태종 1) 11월에는 경연에서 『通鑑撮要』·『大學衍義』 등을 진강했으며, 1402년 3월에는 知貢擧로서 과거를 주관하여 鄭還 등 33명을 선발하였다. 또, 1403년 11월에는 文臣覆試의 程式을 상정했으며, 1407년에는 勸學事目·仲月賦詩法·三館學式 등을 건의·제정하였다.

권근이 조선 초기 관학 교육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의 학문적 능력에 기인한 것이었다. 1403년 3월 사간원에서 “권근은 이색의 학문을 공부하여 그 종지를 얻은 자이니 이제부터 軍國重事에 대한 회의를 제외하고는 날마다 성균관에 나가 유생들을 가르치도록 할 것”을 건의한 것이나, 1404년 5월의 사간원 상소에서 권근에 대해 ‘師範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의 학문적 능력에 대한 당시의 평가를 잘 보여준다. 그 결과 태조~태종대 관학에서 공부한 많은 학자들이 권근의 학문적 영향 속에 성장하였다. 권근이 겸대사성으로 교육을 담당했을 때 인재가 계속해서 배출됐다고 한 『태종실록』의 기사는 권근의 관학 교육의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¹²⁾ 그리고 이 인재들이 세종대에 중앙 관료로 활동

11) 권근은 1393년(태조 2) 2월 태조가 新都 후보지 답사를 위해 계룡산에 행차했을 때 왕명을 받고 행재소에 나와 桓王의 神道碑銘을 찬술한 후 태조와 함께 개경으로 올라왔고, 같은 해 9월 출사하였다.

12)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4월 8일.

하면서 관학 교육과 禮樂 정비 등의 학술·문화 사업을 주도해 나갔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卞季良을 들 수 있다.

변계량은 1385년(고려 우왕 11)에 정몽주가 주관한 과거에서 급제한 이후 권근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사제 관계를 맺었다.¹³⁾ 1407년(태종 7)에 권근이 주관한 문신 重試에서 변계량이 급제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으며, 1408년에는 권근과 변계량이 함께 「臺諫職任事目」을 제정하기도 했다. 특히 변계량은 세종대에 文衡을 담당하여 교육과 문화를 주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文科初場의 經書疑義 시험 등 권근이 건의했던 여러 문교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 많은 힘을 기울였다.¹⁴⁾ 또, 그는 권근이 지은 『入學圖說』의 간행을 주관하고 跋文을 쓰는 등 권근의 학문이 다음 세대 학자들에게 전수되도록 하는 데에 가장 크게 공헌했던 인물이었다.¹⁵⁾

변계량의 활동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세종대 집현전에 끼친 학문적 영향이다. 변계량은 1420년(세종 2) 3월 집현전이 처음 설치되었을 때 大提學에 임명되었다. 집현전 대제학은 祿官[전임 관원]이 아닌 兼官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집현전 연구에서는 변계량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변계량이 집현전 관원들을 대상으로 詩를 시험한 일이나,¹⁶⁾ 집현전 전임관이었던 申樞이 부제학으로 재직할 당시 변계량에게 수학했던 일,¹⁷⁾ 변계량이 史學을 연구할 학자로 直集賢殿 鄭麟趾와 집현전 應教 僕循 등을 천거한 일,¹⁸⁾ 그리고 세종이 賜暇讀書에 선발된 집현전 관원 權綵·辛石堅·南秀文 등에게 변계량의 지도를 받도록 지시한 일 등은 변계량이 집현전의 학문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13) 『세종실록』에는 “옛날 晉山府院君 河崙과 吉昌君 權근이 文詞를 맡았을 때 변계량이 그 문하에 내왕하면서 익혔다.”라는 기사가 있어, 변계량이 권근 문하에서 수업한 사실이 확인된다[『세종실록』 권20, 세종 5년 6월 23일].

14) 변계량이 권근의 문교 정책을 계승·시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고 3장을 참조.

15) 강문식, 앞의 책, p.90.

16) 『세종실록』 권8, 세종 2년 5월 25일

17) 『세종실록』 권20, 세종 5년 6월 23일.

18) 『세종실록』 권30, 세종 7년 11월 29일.

변계량의 집현전 활동은 앞 절에서 살펴본, 권근의 아들·손자·외손 등이 집현전 관원으로 활동했던 것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종대의 학술·문화 발전에 있어 집현전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집현전에서 권근의 후손과 문인 등 그의 학문을 계승한 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은 권근의 학문이 집현전의 학술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권근이 주관한 과거에서 급제했으며, 태종대에 경연 進講을 전담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마다 권근을 찾아가 질문하여 해결했던 金科,¹⁹⁾ 권근의 『禮記淺見錄』 편찬을 도왔고, 권근 사후 『五經淺見錄』의 재간행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며 『입학도설』을 보완하는 『續入學圖說』을 편찬했던 金泮 등도 권근의 학문을 계승한 중요 문인들이다. 이들은 세종대 학술·교육 정책 추진을 주도했으며, 또 이들에 의해 양성된 학자들이 다시 세종대 후반 관학의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이와 같은 사승 관계를 통해 권근의 학문은 세종대 학술·문화의 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Ⅲ. 교육 및 儀禮 제도 정비

1. 교육 제도 정비와 법제화

권근은 태종대에 관학을 주관하면서 교육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권근의 교육 제도 정비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시기는 1407년(태종 7)으로, 이해 3월에 「勸學事目」을 정리하여 태종에게 건의하였고²⁰⁾, 8월에는 仲月賦詩의 법을 건의하여 시행했으며²¹⁾, 또 11월

19)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3월 10일.

20)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3월 24일.

21)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8월 25일.

에는 三館의 학식을 제정하였다.²²⁾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권학사목」인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³⁾

- ① 문과 初場에서 講經을 없애고 四書와 五經의 疑義를 시험할 것.
- ② 中場에서 古賦를 폐지하고 論·表·判을 시험할 것.
- ③ 중국의 吏文은 事大의 중요한 일이므로 고려 明經科의 예에 의거하여 문과 終場日에 이문하는 선비를 함께 시험할 것.
- ④ 예문관의 直館 이상은 東人詩文을 찬집하는 일에 전념하게 할 것.
- ⑤ 館閣 문신과 한량 중에서 문신으로 임용할 만한 사람들은 매일 예문관에 모여 함께 강마하도록 할 것.
- ⑥ 儒學提調로 하여금 매일 한 차례씩 三館 관원들이 읽은 經史의 글을 상고하여 기록하게 하고, 그 내용을 관직 이동 시에 참고할 것.
- ⑦ 『小學』은 인륜과 世道에 절실한 책이므로, 중외의 학교 교육에서 『소학』을 가장 먼저 강하게 하고 太學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成均正錄所에서 『소학』의 通否를 시험하여 응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
- ⑧ 지방의 儒官 중에서 개인적으로 서재를 세워 후학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장려할 것.
- ⑨ 詩章은 유학자의 末技이지만 완전히 폐할 수는 없으니, 3품 이하 문신과 中外의 생도들에게 정기적으로 시를 짓게 하여 능한 자를 표창할 것.

이상 9가지 조목의 「권학사목」에는 권근의 학문관과 교육관이 집약되어 있다.²⁴⁾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이 1413년(태종 13)에 편찬된 『續六典』에 수록되어 법제화됨으로써 조선 초기 관학 교육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는 점이다.²⁵⁾ 『속육전』은 현재 실물이 전하지 않아서 그 전모를 알 수는

22)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11월 25일.

23)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3월 戊寅 : 『陽村集』 권31, 「論文科書」.

24) 권근의 「권학사목」에 담긴 학문관, 교육관에 대해서는 강문식, 앞의 책, pp.77-80을 참조.

25) 『속육전』은 1407년부터 1413년까지 河崙이 주관하여 편찬한 법전으로, 태조대 편찬된 『經濟六典』의 속편이다. 『속육전』에는 1398년(태조 7)부터 1407년까지의 受敎와 條例 등이 6典 체제에 따라 정리되어 있다.

없지만, 『속육전』의 내용이 인용된 실록 기사들을 통해 범조항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 「권학사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태종실록』 태종 17년 1월 기사 중에 “永樂 5년 4월 모일에 길창군 권근이 진언하여 受敎하기를 ‘講論은 과하고 製述을 시험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속육전』에 실려 시행된 지 수년이 되었다.”²⁶⁾는 내용이 있다. 또 『세종실록』 세종 4년 11월 기사에도 “『속육전』을 살펴본즉, 영락 5년 4월 모일에 길창군 권근이 아뢴 말 중의 한 조목에 三館의 여러 관원을 대상으로 儒學提調가 매달 한 번씩 그 동안에 읽은 經書와 史記 등의 글을 講 받고 그의 이름을 문서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연말에 임기가 차서 遷職될 때에 모두 그 읽은 經書의 수의 多寡를 적게 하여…”²⁷⁾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위의 『태종실록』에서 언급된 내용은 「권학사목」의 ①번 조항이며, 『세종실록』의 기사는 ⑤번 조항에 관한 것이다. 이들 실록 기사는 권근의 「권학사목」이 『속육전』에 수록된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권학사목」이 법제화되었다는 것은 조선 초기 관학에서 활동한 학자들은 모두 「권학사목」의 규정에 따라 학습했고 또 과거를 치렀음을 의미한다. 이는 권근의 학문이 가학이나 사승 관계를 통해 개별 학자들에게 전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조선 초기 관학계 전체에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권학사목」의 내용 중 세종대를 포함한 조선 초기의 학술 활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조항은 ①번과 ⑦번이라고 할 수 있다. ①은 문과 초장에서 講經 대신 四書疑와 五經義로 시험을 보자는 것으로,²⁸⁾ 정도전이 1395년(태조 4)에 처음으로 문과 초장에서 강경을 실시한 지 12년 만에 제도의 변경을 주장한 것이다. 권근은 강경이 경학에 밝은 선비를 얻기 위한 것

26)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1월 19일.

27) 『세종실록』 권18, 세종 4년 11월 14일.

28) 四書疑·五經義는 글로 답안을 작성한다는 점에서 당시에는 이를 講經과 대비하여 ‘製述’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사서의·오경의는 경전에 대한 이해를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글짓기라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詩賦를 짓는 제술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본고에서 조선 초기 문과 시행과 관련하여 언급된 ‘제술’은 모두 사서의·오경의를 가리키는 것임을 밝혀둔다.

으로서 그 취지는 좋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경학에 뛰어난 인재는 배출되지 않고 오히려 文才와 氣習만 저하되고 있으므로 강경을 폐지하고 대신 경서 疑義를 시험하자고 주장하였다.²⁹⁾

과거 초장의 시험 방법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세종대에 들어서이다. 권근의 건의에 따라 1407년부터 사서의·오경의로 시행되었던 문과 초장은 1417년에 이르러 다시 강경으로 바뀌었다.³⁰⁾ 이에 변계량이 세종 즉위 직후 문과 초장에서 강경을 폐지하고 제술, 즉 사서의·오경의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논쟁이 촉발되었다. 세종대 강경·제술 논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 그 전모가 확인되었다.³¹⁾ 본고에서 주목하는 점은 당시 제술론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변계량의 논리들이 모두 권근의 이론에 근거했다는 점이다.

변계량은 강경의 가장 큰 문제로 학자들이 경서의 訓詁에만 얽매어 經文의 본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과 고시관들이 응시생을 직접 대면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私情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권근도 바로 이런 점들을 염려하여 제술을 주장한 것이라고 하여 자신의 견해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 그는 술을 빚을 때에 반드시 酒婆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科場에서는 권근이 주파와 같은 인물이므로 과거 제도에 관해 권근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권근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였다.³²⁾

한편, 변계량뿐만 아니라 세종 역시 제술론을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당시 여러 신하들이 제술 대신 강경을 사용하거나 제술·강경의 병행을 주장

29) 강문식, 앞의 책, p.78.

30)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윤5월 14일.

31) 조선 초기 과거의 강경·제술 논쟁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박천규, 「文科初場 講製是非考 : 선조 과거제도의 성립과정에 대한 일고찰」, 『동양학』 6, 1976.

박연호, 「조선전기 사대부 교양에 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32)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4월 23일.

했지만, 세종은 이를 물리치고 변계량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문과 초장에 서의 사서의 오경의 시험을 관철시켰다. 변계량의 제술 주장의 연원이 권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종은 결국 권근이 정비한 「권학사목」의 영향을 받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권학사목」의 ⑦번 조항인 『小學』에 관한 내용 역시 후배 학자들 및 조선 초기 관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 간섭기 고려에 수용된 성리학의 큰 줄기 중 하나가 허형이 주도한 원대 관학이었고, 그 핵심은 『소학』에 기반한 ‘日用倫理’의 실천이었다. 이에 따라 이충인·정몽주·정도전·권근 등 고려 말의 성리학자들은 『소학』적 삶의 실천을 강조했다. 권근의 『소학』 교육 강조는 바로 이와 같은 흐름의 연장선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근은 「권학사목」에서 『소학』을 人倫과 世道에 절실한 책으로 규정하고, 중외의 학교 교육에서 『소학』을 가장 먼저 강하게 할 것과 성균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먼저 成均正錄所에서 『소학』의 通否를 시험하여 응시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소학』은 部學과 鄉校의 先修 과목이 되었고, 이는 『속육전』의 규정을 거쳐 성종대 『經國大典』을 통해 법제화되었다.³³⁾

권근이 추진한 『소학』 학습의 강화는 15세기 말~16세기 초에 등장한 金宗直·鄭汝昌·金宏弼 등 신진 학자들의 『소학』 중시 경향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종직·정여창 등은 관료의 도덕성을 중시했고 이를 위해 修身의 교과서인 『소학』을 철저히 학습하고 『소학』에 담긴 성리학의 윤리와 규범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김굉필은 스스로 ‘小學童子’라고 일컬을 만큼 『소학』의 규범을 窮理하고 실천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16세기 학자들의 『소학』 강조를 15세기 유학과는 구

33) 이희덕, 「조선초기 유교의 실천윤리에 대한 일고찰」, 『서울산업대학논문집』 9, 1975; 『高麗儒敎政治思想의 研究』, 일조각, 1984; 김준석, 「朝鮮前期의 社會思想」, 『동방학지』 29, 1981.

별되는 16세기 성리학의 특징으로 파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³⁴⁾ 물론 16세기 학자들이 이전 시기의 학자들에 비해 『소학』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인식의 심화가 15세기와는 전혀 무관하게 16세기에 들어 새롭게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보다는 고려 말 성리학 수용 이후 꾸준히 『소학』을 중시하고 학습해 온 과정들, 특히 조선 초에 『소학』 학습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켰던 토대 위에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태종~세종대의 학자 許稠는 “『소학』은 과거 응시 때 講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부득이 공부하지만, 『孝經』은 초학자들이 배우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³⁵⁾ 이는 『소학』을 考講하는 제도적 장치가 유생들의 『소학』 학습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비록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소학』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소학』에 대한 이해가 축적되고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15세기에는 개인이나 사회가 자발적으로 『소학』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유생들의 『소학』 학습을 강제하고 의무화하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고, 이를 주도했던 이가 바로 권근이었다. 이렇게 볼 때 권근 「권학사목」의 『소학』 관련 조항은 15세기 『소학』 학습의 제도화, 더 나아가 16세기 『소학』 이해 심화와 사회적 실천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의례 정비와 제도화

권근은 문·사·철의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남겼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여말선초에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던 분야로 禮學을 꼽을 수

34) 기존 연구에서는 15세기 중반 이후 詞章學의 확산과 경학의 부진, 『소학』 교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으로 15세기의 『소학』 교육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김준석, 앞의 논문, p.133].

35) 『세종실록』 권43, 세종 11년 3월 22일.

있다. 권근의 『오경천견록』 중 하나인 『예기천견록』은 『예기』를 다룬 경학 연구서이면서 동시에 그의 예학 이론이 집약되어 있는 예학서였다.³⁶⁾

권근은 예학 연구를 이론적인 측면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자신의 예론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 운영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하는 일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권근의 활동 중 의례 정비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 보면, 먼저 1395년(태조 4)에는 태조의 명에 따라 冠婚喪祭의 예를 詳定했으며,³⁷⁾ 같은 해 겨울 종묘대제가 親行으로 시행되었을 때는 提調로서 정도전·민제·한상경 등과 함께 儀軌 찬수를 담당하였다.³⁸⁾ 또, 1408년(태종 8) 5월에는 태종의 명으로 『예기』에 실린 喪制를 초록하여 올렸으며,³⁹⁾ 같은 해에 태조가 서거했을 때는 喪服色과 國葬都監의 제조를 맡아 국장 운영을 주관하였다.⁴⁰⁾

권근의 의례 정비 성과는 세종대 의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그 예로 1432년(세종 14) 3월에 奉常判官 朴堧이 文舞의 제도를 논하면서 1395년 겨울 종묘대제 때 권근 등이 만든 의례의 내용을 참고·인용한 사례가 있다.⁴¹⁾ 또, 같은 시기에 집현전 부제학 僉僉은 불교적인 의례 시행의 금지를 주장한 상소에서 “臣庶들의 喪祭는 위로는 祖宗成憲을 본받고 아래로는 재상 권근이 詳節한 『家禮』를 취해서 반포하여 준행하도록 하십시오.”⁴²⁾라고 건의하였다. 설순이 말한 ‘권근이 상절한 『가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1395년에 권근이 태조의 명에 따라 상절한 관혼상제의 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추정이 맞다면 관혼상제, 즉 『가례』에 대한 권

36) 『예기천견록』의 체제와 내용 및 권근의 예론에 대해서는 강문식, 『권근의 경학 사상 연구』(일지사, 2008)를 참조.

37) 『태조실록』 권7, 태조 4년 6월 6일.

38) 『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3월 4일.

39)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5월 19일.

40)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5월 24일 ; 권16, 태종 8년 8월 5일.

41) 『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3월 4일.

42) 『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3월 5일.

근의 연구 성과가 세종대 일반 가정의 상제를 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 초기 國家典禮 정비에 대한 권근의 영향력은 그의 문인 許稠가 태종~세종대에 儀禮詳定所와 예조에서 활동하며 국가전례 정비를 주도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南秀文이 찬술한 「文敬許公墓誌銘」 및 『琴湖世稿』에 수록된 허조의 「年譜」에 따르면 허조는 어린 시절에 권근의 문하에서 수학했다고 한다.⁴³⁾ 특히 「문경허공묘지명」에는 허조가 태조대에 奉常寺丞의 직임을 맡아 典故를 바탕으로 散逸된 禮樂 제도를 회복시키자, 권근이 이를 높이 평가하면서 “뒷날 우리나라의 의례를 담당 할 자는 바로 이 사람일 것”이라고 칭찬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⁴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근은 『예기천건록』과 같은 예학 저술을 남길 만큼 이 분야에 조예가 깊었던 학자였다. 따라서 허조가 권근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권근이 그의 예학 능력과 예제 정비의 성과를 칭찬했다는 사실은 허조가 예학 전문가로 성장하고 나름의 예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권근의 예학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허조의 졸기에 따르면 1397년(태조 6) 허조가 釋奠儀를 개정할 때 권근에게 「釋奠儀式」을 얻어 講明한 바가 있었는데, 이는 그가 권근 예학의 영향력 아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⁴⁵⁾

권근과 허조가 강조한 예의 기본 원칙이 동일했다는 점도 허조가 권근의 예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권근이 『예기천건록』에서 가장 강조한 예의 원칙은 ‘상하의 명분과 위계질서의 확립’이었다. 그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분에 따른 예의 차별적 적용을 주장하였다. 즉, 각 신분별로 적용되는 禮制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43) 『금호세고』는 허조와 그의 아들 許詡, 손자 許槩의 遺稿를 모아 1770년(영조 46)에 편찬한 책이다. 4권 2책으로, 제1책(권1:2)이 허조의 「敬庵先生逸稿」이다.

44) 강문식, 「태종~세종대 許稠의 禮制 정비와 禮 인식」, 『진단학보』 105, 2008, p.113.

45) 『세종실록』 권87, 세종 21년 12월 28일.

규정한 다음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으며, 신분의 등급을 뛰어넘는 예제 적용을 강력히 비판하였다.⁴⁶⁾

그런데 실록에 기록된 허조의 예제 관련 기사들을 보면, 허조 역시 상하의 명분과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즉, 국가 의례의 정비 및 각종 정책과 법제의 입안·시행 과정에서 허조가 가장 중시했던 원칙이 바로 ‘上下分別論’이었다. 허조는 가정에서 ‘父-子’, ‘主-奴’의 상하 관계를 엄격히 구분할 것을 주장했으며, 이를 사회적으로 확대하여 ‘官-民’, ‘君-臣’ 사이의 위계질서 확립을 강조하였다.⁴⁷⁾ 이상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예를 이해하는 원칙적인 면에서 허조는 권근 예학의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하며, 이를 통해 허조 예학의 이론적 기초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⁴⁸⁾

허조는 태종대 후반 장기간 예조참의와 예조참판으로 재직하면서 예조 주관의 의례 정비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또 세종대에는 예조판서와 의례상정소 제조 등을 역임하면서 예제 정비를 주관했는데, 특히吉禮와凶禮의 정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허조의 예 인식은 구체적인 국가 의례의 내용에 반영되었다. 특히 허조가 정비한 길례의 예제들은 『世宗實錄五禮儀』와 『國朝五禮儀』에 수록됨으로써 조선시대 예제 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⁴⁹⁾

이처럼 허조는 태종~세종대 국가의례 정비의 주역 중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예학이 스승 권근의 예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정립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권근은 문인 허조를 통해 태종~세종대 국가의례 정비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46) 강문식, 앞의 책, pp.291-296.

47) 허조의 상하분별론에 관한 내용은 한형주, 「許稠와 태종~세종대 國家儀禮의 정비」, 『민족문화연구』 44, 2006, pp.279-287 참조.

48) 강문식, 앞의 논문(2008), p.115.

49) 태종~세종대 허조의 예제 정비 활동 및 그에 반영된 허조의 예 인식에 관해서는 강문식, 앞의 논문(2008)을 참조.

IV. 저술을 통한 영향

1. 經學 저술의 영향

주지하는 바와 같이 권근은 여말선초 경학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였다. 그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담은 『입학도설』·『오경천견록』 등의 저술을 남겼는데, 이들은 성리학적 경학 이론에 기반한 권근 경학의 내용과 특징을 잘 보여준다.

『입학도설』과 『오경천견록』은 세종대 당시 이미 간행·보급되어 조선 초기 학자들의 경서 학습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먼저 『입학도설』은 세종대까지 두 차례 간행되었다. 첫 번째 간행은 1397년(태조 6)에 晉陽大都護府使 金爾音(?~1409)의 주관으로 진주에서 이루어졌다. 1397년 간본에는 『입학도설』의 前集 부분만 수록되었으며, 간행을 주관한 김이음의 발문이 실려 있다. 두 번째 간행은 1425년(세종 7)에 역시 진주에서 이루어졌으며, 권근의 아들 권제와 문인 변계량 등이 간행을 주도하였다. 1425년 간본은 『입학도설』의 전집과 後集을 하나의 책으로 묶은 합본이며, 「卦扨過揲之法」이 부록되어 있고, 권말에 변계량이 지은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⁵⁰⁾

다음으로 『오경천견록』의 간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주역천견록』과 『시천견록』·『서천견록』 등은 현재 목판본과 필사본이 각 1종씩 전하고 있다. 이 중 목판본은 通文館의 李謙魯 선생이 발굴한 것으로, 정확한 간행 연대는 알 수 없지만 1429년(세종 11) 11월부터 1430년 3월 사이에 충청도 지역에서 사용된 관문서의 이면을 이용하여 간행한 점과

50) 1397년과 1425년에 간행된 『입학도설』의 편간 경위에 대해서는 강문식, 「『入學圖說』의 編刊 경위와 經學論」(『장서각』 29, 2013)을 참조. 한편 『입학도설』은 세종대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간행되어 浪州本·榮川本·慶安刻本 등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李丙燾, 「權陽村의 入學圖說에 就いて」(『東洋學報』 17-18, 1929)를 참조.

지질·판식·글자체 등을 종합해 볼 때 1430년부터 1450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⁵¹⁾

『예기천건록』은 1407년(태종 7)에 왕명으로 교서관에서 처음 간행되었지만, 간행 부수가 한정되어 널리 유포되지 못하였다. 이에 1418년(태종 18)에 제주목사 河澹이 다시 목판을 만들어 간행했으며, 이후에도 장흥·경상감영·제주목 등에서 『예기천건록』이 계속 간행되었다.⁵²⁾ 이 중에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판본은 1418년 하담이 간행한 판본의 영본 1책(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貴古朝 06-13)과 1706년 간본⁵³⁾ 등 2종이다.

『입학도설』과 『오경천건록』이 조선 초기 학자들에게 끼친 영향이나 당시 학계에서 가졌던 위상은 권근의 문묘종사를 주장했던 여러 상소들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근의 문묘종사를 처음 거론한 鄭守弘은 권근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

순수한 자질로서 성리학을 연구하여 『입학도설』을 지어 후학에게 도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 주었고, 『천건록』을 지어 옛 학자가 다 알아내지 못한 깊은 이치를 발견했으니, 지나간 성현을 계승하여 오는 길을 열어 준 공이 막대합니다.⁵⁴⁾

라고 하여, 『입학도설』과 『오경천건록』을 권근이 문묘에 종사되어야 하

51) 千惠鳳, 「周易·詩·書淺見錄」, 『季刊 書誌學報』 4, 1991, pp.166-169.

목판본 『시천건록』과 『서천건록』은 한 책으로 합본되어 있다. 목판본 『주역천건록』은 1971년에 보물 550호로, 『시천건록』·『서천건록』의 합본은 보물 553호로 지정되었다.

52) 金京一, 「權近의 五經淺見錄 解題」, 『(영인본) 五經淺見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pp.18-19.

53) 1706년 판본은 제주목사 宋廷奎가 河澹의 간본에 약간의 보정을 가하여 새로 간행한 것으로, 26권 11책 전질이 모두 전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현재 통용되는 『예기천건록』의 영인본은 모두 이 판본을 이용한 것들이다.

54) 『세종실록』 권5, 세종 1년 8월 6일.

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오는 길을 열어 준 공이 막 대합니다.”라는 말은 『입학도설』과 『오경천견록』이 후학들에게 끼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정수홍뿐만 아니라 金泮·金日孜 등 권근의 문묘종사를 주장했던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⁵⁵⁾ 권근 경학 저술이 갖는 학문적 영향력은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 공인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 『입학도설』의 경우 후학들이 이를 계승·보완하는 후속 저술을 남기기도 했는데,⁵⁶⁾ 이 역시 『입학도설』이 가졌던 학문적 위상과 영향력을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한편, 『입학도설』과 『오경천견록』 이상으로 당시 학자들의 경서 학습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권근의 經書口訣을 들 수 있다. 권근의 경서 구결은 그 실물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의 연구에서 크게 주목되지 못하였다. 권근이 경서에 구결을 붙인 사실은 『세종실록』에서 확인된다.⁵⁷⁾ 그에 따르면 권근은 태종의 명에 따라 오경을 대상으로 구결 작업을 진행했는데, 『시경』·『서경』·『주역』의 구결은 완성했지만 『예기』와 『춘추』에는 구결을 달지 못했다고 한다. 세종은 후학, 즉 지금의 학자들이 경서의 본뜻을 잘 모르면서 생도들을 가르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권근의 경서구결을 가지고 가르친다면 유익함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⁵⁸⁾ 이에 대해 맹사성은 따가 있으면 배우는 자가 힘써 연구하지 않을 염려가 있다면 반대했지만, 세종은 程頤와 朱熹가 경서의 깊은 뜻을 이해

55) 金泮은 “『오경천견록』과 『입학도설』은 모두 聖經의 羽翼이며, 학자의 指針”이라고 하였으며[『세종실록』 권59, 세종 15년 2월 9일], 金日孜는 권근이 『오경천견록』을 지어 前賢이 아직 발명하지 못한 것을 밝혔고 『입학도설』을 지어 뒤에 오는 학자들에게 무궁함을 열어 주었다고 하였다[『세종실록』 권72, 세종 18년 5월 12일].

56) 『입학도설』을 계승한 후속 저술로는 金泮의 『續入學圖說』과 권근의 조카 權採가 지은 『作聖圖論』 등이 있다.

57)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윤4월 18일.

58) 위의 글, “予慮後學 或失本意 以訓諸生 若因此而教 豈不有益.”

하도록 하기 위해 註解를 붙인 것을 예로 들면서, 지방의 敎導들도 구결로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실록 기사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는 권근이 『시경』, 『서경』, 『주역』에 구결을 붙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세종이 이 구결들을 경서 학습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권근의 경서구결이 생도들의 경서 학습에 이용됐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종이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던 점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된다.

권근의 경서구결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것은 세조대이다. 세조는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에게 경서를 분담하여 구결을 붙이도록 했으며, 『주역』과 『소학』의 구결 작업은 자신이 직접 진행하였다.⁵⁹⁾ 그 결과 『주역』과 『四書』의 구결은 새로 정했지만, 『시경』, 『서경』의 구결은 기존의 권근 구결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⁶⁰⁾ 이 점은 15세기 후반에도 권근의 경서구결이 여전히 학습에 이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권근의 경서구결 중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주역』 구결이었다. 이는 세조가 직접 『주역』에 구결을 정한 다음 학자들에게 자신의 구결과 권근의 구결을 비교·검토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세조실록』에는 당시 세조의 구결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권근의 구결을 지지하는 학자들 간에 상당히 치열한 토론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사들이 실려 있다.⁶¹⁾ 따라서 실록 기사만을 볼 때는 세조의 『주역』 구결과 권근의 『주역』

59) 김항수, 「16세기 經書諺解의 思想史的 考察」, 『규장각』 10, 서울대학교 규장각, 1987, p.25.

60) 『세조실록』 권47, 세조 14년 8월 8일.

61) 『세조실록』 권37, 세조 11년 10월 9일; 권47, 세조 14년 8월 5일, 10일.

세조 14년의 토론 내용을 보면, 丘從直·安孝禮·崔灝元 등은 세조의 구결을 지지한 반면, 鄭自英은 권근의 구결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세조실록』의 사론에서는 “구종직과 정자영은 모두 經學으로 顯達했으나, 구종직은 아첨하고 학문은 박식했으며, 정자영은 마음이 곧고 학문이 固陋했다.”라고 평가하였다.

구결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역』에 대한 세조의 구결과 권근의 구결이 모두 정이의 『伊川易傳』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조는 『주역』에 대한 주희와 정이의 주석을 비교해 본 결과 정이의 주석이 더 뛰어나므로 자신은 정이 주석을 바탕으로 『주역』 구결을 정했다고 밝혔다.⁶²⁾ 그런데 권근의 구결을 지지했던 鄭自英은 “내가 일찍이 양촌에게 배웠는데 그 설이 程氏와 합하였으므로 마음으로 옳게 여겼다.”⁶³⁾라고 하였다. 이는 권근 역시 정이의 주석에 기초하여 『주역』 구결을 정했음을 보여준다. 즉, 실록 기사를 볼 때 세조의 구결과 권근 구결 사이에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⁶⁴⁾ 두 사람 모두 『이천역전』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두 구결의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같은 주석에 근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세조가 권근의 구결을 참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권근의 경서구결은 조선 초기 경서 학습에서 기본 지침의 하나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경서 학습은 전문적인 경학 연구와는 달리 당시 사대부층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했던 학습 과정이었음을 고려할 때, 권근의 경서구결이 끼친 영향력은 『입학도설』, 『오경천견록』보다 더 컸다고도 할 수 있다.

2. 『孝行錄』 주해와 『三綱行實圖』

『효행록』은 고려말에 權溥가 아들 權準, 사위 이제현 등과 함께 편찬한

62) 『세조실록』 권37, 세조 11년 10월 庚辰.

63) 『세조실록』 권47, 세조 14년 8월 壬辰.

64) 세조의 구결과 권근의 구결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권근이 『이천역전』 이외의 다른 주석도 참고했음을 보여준다. 권근이 『주역천견록』 저술에서 『이천역전』과 함께 가장 많이 참고했던 주석이 주희의 『周易本義』임을 고려할 때, 권근이 『주역』 구결 작업에서 참고한 다른 주석 역시 『주역본의』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책으로, 효행으로 널리 알려진 62인의 행적이 글과 그림, 讚으로 정리되어 있다. 권보가 85세 되던 해에 권준이 아버지를 위안하기 위해서 24인의 효행 설화를 선별하여 그림으로 그린 다음 이제현의 찬을 받아 책을 만들어서 권보에게 올렸으며, 여기에 권보가 직접 38인의 효행 설화를 추가하고 역시 이제현의 찬을 받아서 최종 완성하였다.⁶⁵⁾

권근이 『효행록』을 주해한 것은 1405년(태종 5) 여름으로, 그는 경주에서 간행한 『효행록』에 글자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교정한 다음 매 장마다 주석을 붙이고 발문을 썼다. 권근은 『효행록』을 주석하면서 운문으로 된 이제현의 찬을 산문으로 풀어쓴 다음 효행 사례의 역사적 배경 등의 내용을 더 보충함으로써 사건의 전후 사정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권근의 『효행록』 주해는 성리학적 윤리의 보급, 특히 ‘효’ 윤리의 보급이라는 교화적 목적을 위해 지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효행록』 주해에서 “사람이 천성을 다하여 효를 지극히 하면 하늘이 반드시 보응한다.”는 논리를 여러 차례 반복 강조했는데, 이는 그의 저술 목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권근은 『예기천견록』을 통해 유교 윤리 중에서 ‘효’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러나 경학 연구서인 『예기천견록』으로는 일반 민에게까지 ‘효’ 윤리를 보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이해하기 쉬운 교화서가 필요하였다. 권근은 자신의 선조들이 지은 『효행록』이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을 붙여 널리 보급하고자 했다고 생각된다.⁶⁶⁾

권근의 『효행록』 주해가 편찬된 이후에 교화서로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1413년(태종 13)에 서연관들이 『효행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병풍을 만들었고 충녕대군이 그 내용을 잘 해석했던 일과⁶⁷⁾ 1415년에 金乙幸·李好信 등이 『효행록』을 다

65) 河宇鳳, 「世宗代의 儒教倫理 普及에 대하여」, 『全北史學』 7, 1983, pp.28-32.

66) 강문식, 앞의 책, pp.119-120.

67)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12월 30일.

시 간행했던 것을 볼 때⁶⁸⁾ 『효행록』이 조선 초기에 계속해서 보급되고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세종대에 들어서도 『효행록』의 간행이 이루어졌다. 1428년(세종 10) 金禾의 부친 살해 사건을 계기로 세종이 대민 교화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자 변계량이 『효행록』을 간행하여 민간에 널리 보급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세종은 舊撰 24孝에 20여 개의 효행 사례를 추가하고 또 우리나라의 효행 사례도 더해서 『효행록』을 편찬할 것을 지시하였다.⁶⁹⁾ 즉, 세종대에 중간된 『효행록』은 기존의 『효행록』을 다시 간행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증보하여 새롭게 편찬한 것이다. 이때 기본이 되었던 ‘舊撰 24孝’가 권근이 주해한 『효행록』의 일부인지 혹은 효행 사실을 정리한 다른 책인지는 확실하지 않다.⁷⁰⁾ 하지만, 비록 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효행 사실을 책으로 편찬·보급함으로써 대민 교화를 실현하고자 했던 점은 기본적으로 권근의 『효행록』 주해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흐름의 연장선에서 나타난 것이 1432년(세종 14)에 편찬된 『三綱行實圖』이다.

『삼강행실도』는 忠·孝·烈의 윤리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에 집중한 『효행록』과는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삼강행실도』의 효자편에 수록된 내용 중 상당수가 『효행록』의 효행 사실들과 중복되는 점은 『삼강행실도』를 편찬할 때 『효행록』이 참고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

당시 서연관들이 만든 병풍은 『효행록』에서 중요 효행 사례를 발췌하여 그림으로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현의 찬과 권근의 주석을 함께 기록한 것이었다. 『태종실록』에는 병풍이 완성되자 세자였던 讓寧大君이 忠寧大君에게 내용을 해석하게 했는데, 충녕대군이 풀이한 뜻이 매우 曲盡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68) 李熙德, 『高麗儒教政治思想의 研究』, 일조각, 1984, p.317.

69) 河宇鳳, 앞의 논문, pp.29 ; 李熙德, 위의 책, p.318.

70) 이희덕은 ‘구찬 24효’가 권근이 주해한 『효행록』 중에서 권근이 먼저 편찬했던 24효 부분일 것으로 보았다[이희덕, 앞의 책, p.318]. 반면, 하우봉은 ‘구찬 24효’가 南宋의 趙子堅이 편찬한 『趙子固二十四孝書畫合璧』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우봉, 앞의 논문, pp.30-31].

다. 또, 효행 사례를 글로만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 설명함으로써 한문을 모르는 일반 민들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마지막에 본문 내용을 韻文으로 정리하여 노래로 암송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형식적인 면에서 『삼강행실도』가 『효행록』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을 볼 때, 『효행록』이 『삼강행실도』 편찬에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세종대의 학술·문화의 발전은 1차적으로 세종과 당시 관료·학자들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앞선 시기인 여말선초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여말선초에 활동한 여러 학자들 중에서 세종대 학술·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권근을 들 수 있다.

권근은 태조~태종대 관학의 중심인물로 활동하면서 인재 양성과 교육 제도 정비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文·史·哲의 제 분야에서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이런 성과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음 세대의 학자들에게 전수되어 세종대 학술·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세종대 학자 金泮은 이제현·이색·권근의 文廟從祀를 주장한 상소에서,

崔致遠·薛聰·安珦의 뒤에 오직 益齋 이제현이 道學을 唱鳴했고, 牧隱 이색이 실로 그 정통을 전했으며, 신의 스승 陽村 권근이 홀로 그 宗旨를 얻었습니다. 권근 학문의 淵源은 이색에게서 나왔고, 이색 학문의 정통은 이제현에게서 나왔으니, 세 분의 학문은 다른 예사 先儒들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⁷¹⁾

71) 『세종실록』 권59, 세종 15년 2월 9일.

라고 하여, ‘이제현→이색→권근’으로 이어지는 여말선초 성리학의 道統을 규정하였다. 세종대 학자들이 권근을 도통 계승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이 시기 학자들에게 끼친 그의 학문적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권근의 학문은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세종대의 학계에 영향을 끼쳤다. 첫째는 안동 권씨 가학과 관학에서의 교육 활동을 통한 학문 전수이다. 가학으로 권근의 학문을 계승한 이들로는 권제·권람·최항·서거정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집현전에서 활동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 사제 관계를 통해 권근의 학문을 계승한 이로는 변계량이 대표적인데, 그는 권근의 문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했고 권근의 학문이 다음 세대로 전수 되도록 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두 번째는 교육과 의례 제도 정비를 통한 영향이다. 권근은 교육·문화 계통의 관직에 종사하면서 「권학사목」을 비롯한 여러 교육 제도들을 입안했으며, 이 내용은 『속대전』에 수록되어 법제화되었다. 또, 그는 자신의 예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사회 운영에 필요한 여러 의례들을 제정했는데, 이는 태종~세종대 의례 정비 및 시행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교육·의례 제도의 정비는 권근의 학문이 사승 관계를 통한 전수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서 조선 초기 관학계 전반에 영향을 끼쳤음을 잘 보여준다.

세 번째는 저술을 통한 영향이다. 권근은 문·사·철의 세 분야에서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특히 세종대를 비롯하여 후대 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는 『입학도설』, 『오경천견록』 및 경서구결 등의 경학 저술과 『효행록』을 꼽을 수 있다. 『입학도설』, 『오경천견록』은 여러 차례 간행되어 학자들에게 보급되었으며, 경서구결은 조선 초기 경서 학습의 중요한 지침서가 되었다. 또, 『효행록』은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 세종대 『삼강행실도』 편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參考 文獻〉

『朝鮮王朝實錄』(태조~세조)

權近, 『陽村集』(한국문집총간 7집)

강문식, 「集賢殿 출신 官人の 學問觀과 政治觀」, 『韓國史論』 3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8.

_____, 「權近의 역사인식과 역사서술」, 『한국학보』 117, 2004.

_____, 「태종~세종대 許稠의 禮制 정비와 禮 인식」, 『진단학보』 105, 2008.

_____, 「『入學圖說』의 編刊 경위와 經學論」, 『장서각』 29, 2013.

_____, 『권근의 경학사상 연구』 일지사, 2008.

金京一, 「權近의 五經淺見錄 解題」, 『(영인본) 五經淺見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김준식, 「朝鮮前期의 社會思想」, 『동방학지』 29, 1981.

김항수, 「16세기 經書諺解의 思想史的 考察」, 『규장각』 10, 서울대학교 규장각, 1987.

박연호, 「조선전기 사대부 교양에 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4.

박천규, 「文科初場 講製是非考」, 『동양학』 6, 1976.

李丙燾, 「權陽村の入學圖說に就いて」, 『東洋學報』 17·18, 1929.

이희덕, 『高麗儒教政治思想의 研究』, 일조각, 1984.

千惠鳳, 「周易·詩·書淺見錄」, 『季刊 書誌學報』 4, 1991.

河宇鳳, 「世宗代의 儒教倫理 普及에 대하여」, 『全北史學』 7, 1983.

韓永愚, 『朝鮮前期史學史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1.

한형주, 「許稠와 태종~세종대 國家儀禮의 정비」, 『민족문화연구』 44, 2006.

Abstract

The Influence of Kwon Geun on the Academic Research and Culture of King Sejong's reign

Kang Moonshik*

The scientific research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he King Sejong's reign was primarily made through the efforts of King Sejong and the scholars of that time. On the other hand, however, it was possible because of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senior scholars. Among the senior scholars, Kwon Geun had the most influence on the academic research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he King Sejong's reign.

Kwon Geun's studies influenced the academic world of the King Sejong's era in three main ways. The first is the transfer of learning that has led to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the study of the Andong Kwon's family and the national school. The leading figures who inherited Kwon Geun's studies through the family studies and the national school were Kwon Je, Kwon Ram, Choi Hang, Seo Gyeong-jeong, and Byun Kye-ryang. They had something in common that they worked in Jiphyeonjeon during the King Sejong's era. This clearly shows that Kwon Geun's student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government's studies of the Sejong's era, which is represented by Jiphyeonjeon.

The second is the effect of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and ritual systems. Kwon Geun worked as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created various institutions for government education and national ritual. These contents have been legalized and become an important refer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ritual systems in the era of King Taejong and Sejong. This means that Kwon Geun's studies influenced the government academic worl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rough law and system as well as transfer through teacher-student relations.

The third is the influence of academic writings. Among his writings, *Iphakdoseol* and

* Senior Curator of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NU / kangms1@snu.ac.kr

Ogyeongcheom-gyeon-rok the book about Confucian classics were published several times and distributed to scholars. And *Gyeongseo-gugyeol*, the method of reading Confucian classics became an important guide to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In addition, *Hyobaengrok* had an important impact on the compilation of *Samgangbaengshildo* in terms of content and format.

【Key words】 King Sejong, Kwon Geun, the study of the Andong Kwon's family, the national school, *Gyeongseo-gugyeol*, *Hyobaengrok*

투고일 : 11월 2일, 심사완료일 : 12월 1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